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9.(화) 11:00 < 7.10.(수) 조간 > 배포 2024. 7. 9.(화)

초고압직류송전, (200MW급)전압형 기술 국산화

- 양주 BTB HVDC* 준공식 통해 미래형 전력망 시대로 첫걸음 내딛어

* High Voltage Direct Current : 초고압직류송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7.9.(화) 양주변전소에서 개최한 200MW 전압형 HVDC 준공식에 참석하여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과 기술실증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HVDC에 비해 실시간 양방향 전류 전송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HVDC는 교류에 비해 장거리 송전, 해저송전,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양주 HVDC는 2013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공사례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전압형 HVDC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HVDC 설비는 경기 북부지역의 계통안정성 확보(고장전류 및 선로과부하 저감)와 발전효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GW급 전압형 HVDC 대용량화 기술 개발을 후속 추진하는 한편, 전세계 수요에 대응한 新중전기기(고전압 대전력 전기기기)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HVDC는 해상풍력 연계 등 미국·유럽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성공을 시작으로 기술고도화, GW급 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에 적극 나설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3930)
		담당자	사무관	배재형 (044-203-39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양주 BTB 행사 준공식 개요**

1. 행사개요

□ (목적) 전압형 HVDC 국산화 성과발표 및 유공자 장관상 표창(6점)

□ (일시/장소) 7.9(화) 14:00 ~ 15:00 / 한전 양주변전소*

* 옥외 준공식 계획(강우 대비 천막 설치, 우비 준비 등)

□ (참석자) 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 한전, 전기연구원, 효성중공업 등

<국책과제개요>

- **(과제명) 200MW급 전압형 HVDC 국산화 개발 및 운영·실증**
- **(목적)** 전압형 HVDC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 **(사업기간)** '17.11월~'23.9월(총 71개월)
- **(참여기관)** 한전, 효성, 전기연구원 등 20개 산·학·연 기관 구성

2. 세부일정(안)

시 간	(60')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소개	
14:05 ~ 14:15	(10')	· 사업 추진경과 보고 및 영상 시청	
14:15 ~ 14:25	(10')	· 기념사(한전) 및 축사(산업부)	
14:25 ~ 14:35	(10')	· 포상수여 및 감사패 전달	
14:35 ~ 14:40	(5')	· 리본커팅 및 기념촬영	
14:40 ~ 15:00	(20')	· 변환소 현장점검	